

이용섭 광주시장 내년 국비확보 ‘구슬땀’ “광주세계수영대회 국비 증액 요청”

국회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만나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사업 설명
정부의 광주 관심요청 등 ‘분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등 ‘분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끝난 후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일자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비 추가 지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구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는 현재 광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후 10여 일 만인 7월1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국비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윤병태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과 면담하고 2019년도 국비지원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에는 국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으며, 간담회 직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

라 면담하고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더불어 8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13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시도지사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 예산정책,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불벌더위에 참깨터는 농민

불벌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8월 23일)를 여드레 앞둔 15일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수촌 마을에서 한 농민이 수확한 참깨를 털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는 23일쯤이면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가평군 “물놀이 조심 또 조심” 올해만 10명 숨져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이따라 발생하면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안전대책이 급속히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5시경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하던 A(23)씨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상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119에 의해 후송 됐으나 숨졌다.

또 지난 5일 가평경찰서와 주민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물놀이 하던 B(33)씨가 숨졌다. 같은 날 청평면의 모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C(73·여)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같은 달 14일에도 상면의 모펜선 수영장에서 E(3)남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계속 사고 발생해 각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고성철 기자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디자인·시설개선 본격화

광주시 북구의 말바우 시장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고객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개발과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말바우 시장은 2만평 규모의 공간에 500여개의 상점이 운영 중에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방문을 원하는 상점의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컨설팅실 시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억 7000여 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미디어보드, 아케이드 감성조명, 서비스 디자인 등 안전하고 찾기 쉬운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외부에서 시장으로 오는 길, 시장 내 안내판, 주차장 진입로 표시 등 웨이 파인딩과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



치를 파악하고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안내 사인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만남의 광장 내 햇빛 가림막, 제1·2주차장 앞 쉼터 의자에 대형 전자일 및 아케이드 구간별 LED 감성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전통시장만이 가진 특성과 다양한 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경기도 농산물 가공품 코엑스에서 만나세요”

경기농기원

‘한가위명절선물전’ 19일까지 진행
14개업체 참가·100여개 제품 전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을 홍보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이나 명절선물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14개 업체를 선발한 농기원은 명절선물전에서 기업, 백화점, 마트 상품기획자, 유통바이어, 단체 구매담당자 및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물관, 주류관, 건강상품관 등 7개관에서 다양한 명절선물을 선보이는 행사로 치솟는 물가와 ‘김영란법’으로 명절선물을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와 판로를 걱정하는 생산자를 위한 좋은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도라지청), 솔샘(전통주), 산채움(건나물), 아이비(허니와인), 가래울(참

기름), 이삭뜰(전통장), 조은이식품(배도라지청), 연천청산버섯(버섯식초), 한씨가원(들기름), 좋은술(전통주), 하네뜨치즈(치즈), 한경에프앤비(유과), 아름답(여주즙), 초담초담(뽕잎식초) 등 14개 업체가 참가해 총 10개 부스에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명절선물세트 100여개 제품이 전시 홍보된다.

특히 ‘김영란법’에 맞춘 3만~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한편, 농기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을 알리기 위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미용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우리원 기술이전과 창업지원을 통해 생산된 농가형 가공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수원시 명예의 전당’

경기 수원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수원을 빛낸 8분을 헌액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내빈들이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장성군 젊은 영농인재 발굴·육성 앞장

청년농업인에 사업 적극 지원

장성군이 젊은 농업인, 이른바 ‘청년연어’ 육성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22개 전남 시군 가운데 청년농업인 육성에 가장 많은 자체 추진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장성군이 자체 집계한 ‘2018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시군별 자체추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장성군은 자체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총 10개소에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지원했다. 이는 22개 전남 시군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장성군의 성과는 사업량 부문에서도 돋보인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사업량이 두 배나 많다.

장성군이 이처럼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까닭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장성군은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성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벌이



유두석 장성군수가 ‘2018 청년 연어 농업인 창업계획 발표평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는 자체 사업도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등 6개에 이른다.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반응도 뜨겁다. 올해의 경우 당초 5개 농장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10개 농장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장성군 농업의 미래가 청년 연어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지역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고성철 기자